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구요?

며칠 전 4년간 행정고시를 준비중인 서른 살 제자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의외로 환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5년 전 이 학생이 고시를 준비하고 싶다는 상담하러 왔을 때의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엔 2차까지 합격하고 싶다는 기대감이 높아서인지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어서 덩달아 유쾌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폐쇄적이며 불안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1년 반 전부터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후 마음이 평안해지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뜻밖의 반가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토로하는 고심을 듣고서는 예정된 업무를 제쳐두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흥금을 털어 놓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제 친구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선교 센터 대표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부당하게 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교회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를 보고 믿어야 합니까?” 나이 든(!) 학생의 분노에 대해 시편 73편과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성경과의 공감을 확실히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출발과 근거가 무엇이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교통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길을 건너는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까? 시간을 미래로 확장해 보면 누가 손해를 볼 사람입니까? 생존 경쟁에서 뒤처져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어리석음을 위장하거나 손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까? 신호등의 불빛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느라 손해를 보았다고 평가하는 세상이라면 ‘까짓 것 손해를 보며 살지 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는 세상에서 ‘손해(?)’로 여겨지는 생각과 활동을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해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입보다 산출이 적을 때 밀렸다고 합니다. 동역회의 자산은 인적 자원이고 투입 요소는 학술적 섬김입니다. 동역회가 가장 잘 ‘밀질 수’ 있는 길(!)은 학술적 섬김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교육 및 연구는 이러한 섬김의 3대 핵심 활동입니다. 올해에는 소박한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개인적으로나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온 기독교 세계관 강연을 동역회의 공식적인 강연 시리즈로 체계화하여 교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강연 수요처를 찾아가는 섬김을 활성화시키고자 대표적인 강의 10개~20개를 재발굴하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올 5월 평택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춘계 학술대회를 전후하여 평택대 또는 인근 교회에서 특정 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연을 시범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러가는 섬김에서 찾아가는 섬김으로 좀 더 부지런을 떨어보자는 것입니다.

동역회는 소통하는 호흡과 몸짓을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동역 공동체나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기회를 넓혀갈 것입니다. 올해엔 몇몇 교회들과 공동으로 강연, 좌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교회를 섬기는 몸짓을 단련하려 합니다. 지난해 2개 교회와 시범적으로 시도해 본 공동 프로그램은 소통의 창을 열어가는 유효한 방식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역회는 서른살이 넘었지만 창밖에서는 아직 동역회의 존재와 몸짓을 인지하지 못하는 또래들과 구경꾼들이 꽤 많습니다. 월간지 <월드뷰>는 우리 동역회의 영양가 높은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들고 자유롭게, 맑은 호흡과 밝은 눈빛으로 나들이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동역회는 들숨과 날숨을 겹쳐 즐겁게 소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학자들)에게 허를 주신 것은 곤고한 자들을 돕게 하시기 위함입니다(사 50:4). 동역회는 학술적 여건이 열악한 해외 수요에 대해서도 섬김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설립된 여러 기독교 대학들에 “학자들의 허”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역회 지체들은 각자 전공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몸짱’과 ‘영(靈)짱’이 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자율적인 게임을 최소화하려면 함께 점검하고 격려하고 운동할 동역자들의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유대감은 올해에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일무이한 기회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면 손해를 보게 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라면 즐겁게 손해 보며 살자구요. ☺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의 운영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 상대적인 과학, 절대적인 성경



현대 전 인류의 문화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두 가지 현상을 꼽으라 하면 기독교와 과학기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거대한 세력은 16세기부터 서로 애

증관계를 유지해 왔다.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과학기술은 불가능했을 것이나, 기독교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한 것은 역시 현대과학과 과학기술이다. 종교개혁은 자연이 살아있고 신적이란 전통적인 유기적 세계관(organistic world view)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는 기계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 view)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려움 없이 자연을 상대로 실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으로 오늘의 자연과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호이카스(R. Hooykaas)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학사학자들의 주장이다. 오늘날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화이트(Lynn White Jr.)도 현대과학의 발전이 기독교 때문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그 무엇도 현대과학만큼 기독교에 위협적인 것은 없었다. 1802년 프랑스 물리학자 라플라스(P. Laplace)가 우주의 체계에 대한 자신의 저서를 나폴레옹에게 바쳤을 때 나폴레옹이 그 책에는 우주의 창조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는 “폐하, 저는 그런 가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Sire, ‘Je n’avais pas besoin de cette hypothèse-là.)” 고 대답했고 그 발언은 기독교에 대한 과학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의 도우킨스(R. Dawkins) 교수가 쓴 『하나님이란 망상』(The God Delusion)도 그런 관점을 표현한다. 오늘날 다른 어느 종교나 사상보다 자연과학이 더 큰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고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은 기독교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초대교회가 당대 철학으로부터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격을 오늘의 기독교가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심각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대응은 과학적 지식의 권위를 인정하고 과학의 설명과 어긋나는 성경의 내용을 신화나 상징으로 재해석해 버리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신학이 주로 이런 입장을 취했고 그 때문에 교회는 치명상을 입었다. 자연과학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창조과학운동도 다르지 않다. 다만 자유주의 신학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당장 설명될 수 없는 성경의 내용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 과학을 이용하여 성경을 옹호하려는 시도는 성경의 진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과학임을 인정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끝까지 지키려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과학 문서가 아니므로 성경이 과학적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성경의 권위와 과학의 권위 양자를 다 존중하면서 “신앙 따로, 과학 따로”의 편리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관점에는 물론 일리가 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인 ‘사랑’, ‘구원’, ‘죄’, ‘회개’ 같은 것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과학이 논의할 능력도 없다. ‘아름다움’, ‘슬픔’, ‘존엄성’ 등도 마찬가지다. 물론 현대과학은 모든 현상을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환원주의(reductionism)와 부분적인 설명을 전체로 확대하려는 연장(延長, extrapolation)의 유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런 유혹에 넘어 간 ‘과학자’들이 없지 않다. 자유니 존엄성이니 하는 것은 모두 허구며(F. Skinner) 심지어 도덕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적 현상을 생물학으로, 생물학적 현상을 화학적으로, 그리고 화학적 현상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환원주의자들은 매우 많다. 이런 주장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실험으로 증명하는 과학이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철학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인 문서가 아니란 주장에는 성경을 어떤 특정한 범주에 한정하는 위험이 있다. 과학적 지식은 특정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제한할 수 없다. 성경에는 역사, 시, 심리적 현상 등 다양한 종류의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는 자연과학이 문제 삼을 내용도 얼마든지 있다.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 같은 것이 과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가 과학적 문서는 아니지만 자연과학과는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피상적이고 너무 쉬운 해결이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해소방법은 없다. 그래서 갈등의 경우에는 (1)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2) 그것이 잘못이란 과학의 주장이 과연 절대적인지를 물어보아야 하고 (3) 과학의 주장이 의심할 수 없이 참이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성경 해석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고 과학의 주장도 잘못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은 거짓이라는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b>대표주간</b>	<b>손봉호</b>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발행인</b>	<b>김승욱</b>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b>편집위원</b>	<b>강진구</b>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b>김정호</b>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b>김태황</b>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b>박상은</b>	인양생명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b>송인규</b>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b>신국원</b>	충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우종학</b>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b>이승구</b>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b>조성돈</b>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b>조영길</b>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b>조정민</b>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전)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b>실무진</b>	<b>이원우</b>	미디어펜 기자, 시사주간 미래한국 전 편집장,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의 밤 젊은 자유인상 수상
	<b>황정희</b>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b>신효영</b>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충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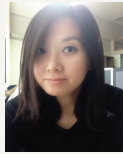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이원우 기자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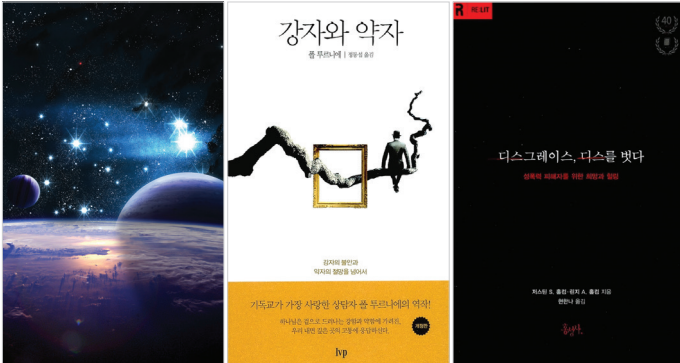
<b>이사회</b>	<b>이사장</b>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b>부이사장</b>	김의원 (아태아지도자개발연합(ATEA) 원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b>이사</b>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충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커뮤니티 목사)
<b>실행위원회</b>	<b>감사</b>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b>위원장</b>	김태황 (명지대 교수)
	<b>부위원장</b>	박동열 (서울대 교수)
<b>위원</b>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생명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충신대 교수), 신국원 (충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충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Contents

WORLDVIEW · MARCH · 2015

# WORLDVIEW

2015년 3월호 WORLDVIEW 통권 177호



표지인물  
강영안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교정/교열 김선경  
사 진 신호영  
편 집 김소라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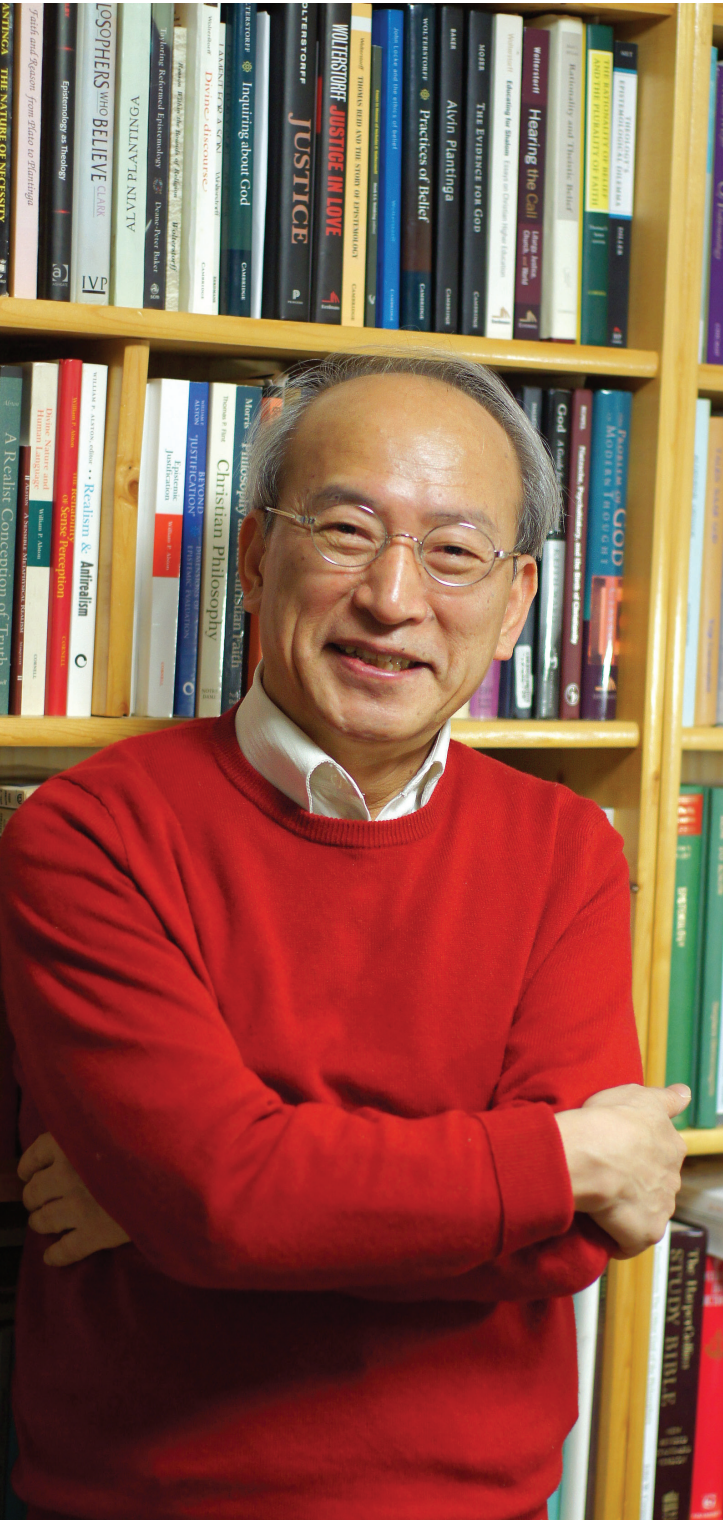
- COVER STORY** 08 커버스토리 신앙과 삶과 학문의 삼각구조\_강영안
- SPECIAL** 22 기획칼럼 생명이 첫째입니다\_박상은  
26 기획칼럼 다시 생각해보는 과학\_박문식  
30 기획칼럼 과학, 실제 그리고 성경\_박희주  
35 기획칼럼 교회는 젊은지구론을 넘어서야 한다\_우중학
- COLUMN** 02 실행위원장 신년사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구요?\_김태황  
04 대표주간 상대적인 과학, 절대적인 성경\_손봉호  
42 메디컬칼럼 Cure & Care 10만 번, 10만Km\_최현일  
46 청년연단 마녀사냥과 연애 담론의 시대\_박명호
- CULTURE** 62 편집# 편집인의 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64 유머 아내와 생명\_손봉호
- BOOK RE-  
VIEW** 50 서평 강자와 약자\_전요섭  
54 서평 디스그레이스, 디스를 벗다\_이진영
- NEWS** 60 사무국 뉴스  
61 월담 3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신앙과 삶과 학문의 삼각구도

조금은 이른 정년퇴임을 한  
강영안 서강대 명예교수를  
발행인 김승욱(중앙대) 교수가 만났다.

Interviewer\_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승욱(이하 김):**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은퇴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으실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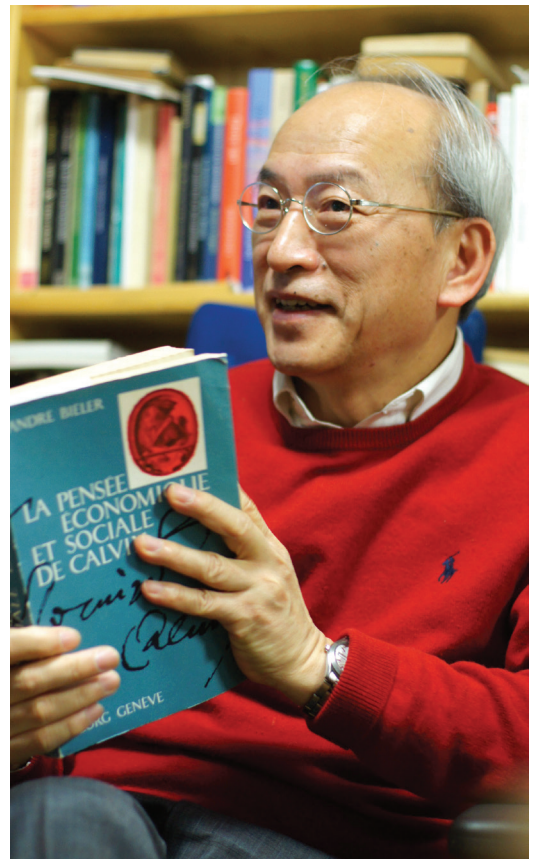
**강영안(이하 강):** 시원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대학원 강의를 못하는 것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서강대에서 하던 대학원 강의를 이제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읽기 힘든 철학 텍스트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다뤘거든요. 1995년까지는 독일어로, 2000년까지는 불어로 된 책을 대학원 수업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대학원생들이 독일어나 불어로 된 책을 읽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를 다루어도 (우리말 번역서가 없으니) 줄곧 영어로 된 책으로 읽었죠.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이런 텍스트를 읽는 강의를 하겠어요?(웃음) 그러나 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학교에 매여 강의를 하지 않을 뿐, 읽고 쓰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일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되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부가 좋아서 했으니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겠지요. 그러니 은퇴를 해도 뭐 크게 바뀔게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밥 세끼 먹는 게 사실 큰 변화겠지만요.

**김: 은퇴하신 후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강:** 지금까지 학교 일과 바깥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장 등 보직을 꽤 오래 맡았고, 외부 활동도 많았습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틈을 더 만들어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지요. 강의할 때에는 늘 난해하고 두꺼운 서양 책들을 읽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강의를 없으니 한 주제에 집중해서 읽고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논문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110편정도 썼으니까요. 책은 15권 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쓴 책은 열추 33권이 넘습니다.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책을 더 많이 썼으면 해요.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책은 논문이 쌓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김:** 건강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창의적인 생각은 점점 성숙해질테니 은퇴, 65세라는 나이에 엄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 그렇죠.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연령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다만,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것은 책을 읽어도 30~40대에 읽었을 때보다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논문을 써도 칸트나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워낙 빠삭하게 읽었으니까요.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어느 부분, 어느 페이지를 봐야 하는지 대강 아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한 철학자의 텍스트를 읽고 그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대신, 제 자신의 생각을 좀 올곧게 밀어붙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제 생각, 제 소리, 제 말을 쓰는 것은 수월합니다. 기억력에 의존할 필요 없이 생각을 논리적이고 올곧게 밀어붙이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1년 지내면서 책을 800권 넘게 사왔습니다. 읽을 것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읽는 것은 생각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듯이 읽지 않고서는 생각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없습니다. 읽기를 게을리하면 생각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하고, 물어야 하고, 따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토론하거나 쓰는 겁니다. 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쓰고, 또 쓰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됩니다. 생각하면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이 학자의 삶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공부하든 간에 학자는 끊임없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이 네 가지 활동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활동 모두에 생각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의 삶에서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답하는 과정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야 합니다.

**강:** 교수님께서서는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셨으니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데 비교적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고등학교 때 파스칼과 키에르케고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그 당시는 이분들을 실존주의의 원조로 볼 때였지요). 그런데 저를 철학으로 안내해 줄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지요(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는데 중학교 학적부를 보니 중1부터 이미 장래 희망이 목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록하셨을텐데 제 의견이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철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이퍼(Abraham Kuyper)와 바빙크(Herman Bavinck)의 신학 그리고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지요. 신학대학을 떠나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갔는데 입학하자마자 손봉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로 가서 신학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손봉호 선생님을 만나고서는



저는 학자의 삶에서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답하는 과정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야 합니다.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군대 마치고 복학했을 때는 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지요. 손봉호 선생님은 그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 목사나 신학자가 되어야 할 사람을 철학자가 되게 영향을 주었으니까요.(웃음)

저는 처음부터 신앙과 학문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배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별로 없이 빨리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요. 신앙과 삶, 그리고 학문이라는 삼각구도가 오랫동안 저에게 학자로서의 삶을 지탱해주었습니다. 저는 총 4곳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고려신학대학(고신대 전신), 한국외국어대, 벨기에 루뱅대 그리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이지요. 이 중 한국외국어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대학입니다. 또 제가 적어도 1년 이상 전임 교수로 가르친 대학도 4곳인데요.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 계명대, 서강대, 미국 칼빈대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오래 가르친 곳이 계명대(4년)와 서강대(25년)입니다. 그런데 레이든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친 셈입니다. 기독교대학, 기독교

학문, 기독교윤리. 다시 말해 신앙과 학문과 삶은 저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김: 손봉호 교수님은 왜 미안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위한 교수님의 역할은 신학자가 되나 기독교 철학자가 되나 변함없었을 것 같은데요.**

**강:**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때는 신학자인지 철학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의 신학자라도 (국내 학자보다는 오히려 외국 학자들과 만날 때) 대화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신학과 철학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손봉호 선생님의 경우는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손봉호 선생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 했을 겁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도 누구 못지않게 교회를 위해 활동하시잖아요. 목사나 선교사 못지않게 교수로서,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게 한 분이 손봉호 선생님이십니다.



**김:** 올해 <월드뷰>에서 한국 교회의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왕성히 참여하시게 된 신앙적 배경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강:** 손봉호 교수님이나 이만열 교수님, 그리고 저나 부산대 김유신 교수, 경상대 백종국 교수, 모두 고신 출신입니다. 학자로서 활동하거나 시민운동에 깊숙이 참여하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고신에서 배운 신앙 유산입니다. 고신은 화란 개혁주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카이퍼 전통(Kuyperian tradition)이지요. 저도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나 알빈 플랜팅가(Alvin Plantinga), 손 교수님, 저 모두 기본적으로 카이퍼리안들입니다.

카이퍼리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고신 측에

SFC(Student for Christ)라는 학생신앙운동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SFC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호가 바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예술, 교육, 법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배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신은 신학과 정치, 그리고 사회를 보는 관점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사실 그렇긴 해요) 고신의 학생신앙운동을 통해 자라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 교사, 기업 경영인, 또는 주부가 되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우고 자랐어요. 고신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 교수님이나 이만열 교수님, 저나 백 교수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삶에서 (어느 정도) 진보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은 고신에서 배운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김:** 칼빈은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에 대한 관심 두 가지 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 전통을 신 칼빈주의(neo-Calvinism)라 부르는데 칼빈의 정신을 상기시킨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회참여를 더 강조한 것입니까?

**강:** 칼빈에 대해서는 어떤 눈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에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면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훨씬 중요하고,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우위를 두고 생각을 하면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통적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월러스(Ronald S. Wallace)는 칼빈 신학의 이러한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경제사회사상』(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 de Calvin)이라는 책을 쓴 앙드레 비엘레(Andre Biéler)의 증언을 들어보면 칼빈은 놀랍게도 (막스 베버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가 교회개혁을 통해 일으킨 큰 변혁 중 하나가, 청소를 하든 학문을 하든 무얼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

사가 자신의 일을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청소부가 자기 일을 주께 하듯이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 정신을 루터나 칼빈이 공유한 것입니다. 칼빈은 1564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실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출현과 과학혁명, 산업혁명, 계몽주의 등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회체제의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퍼는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방식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골격,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본주의나 자유주의 등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곧 '건축술적 비판(Architectonic Criticism)'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가난을 산출시키는 사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카이퍼 사상이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카이퍼라고 하면 189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한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 정도만 알고 있지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카이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카이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카이퍼 강좌가 생겨 해마다 주요 인사들이 연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한창 논의되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서도 카이퍼 사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학을 교회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와 공공영역으로 가져와서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신학이 지역적(local) 역할을 벗어나 공공(public)의 영역과 세계(global)의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방향이 신학과 교회에 건강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카이퍼의 저서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 많

지 않습니다. 최근 그의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저는 이것을 '공통은혜'라고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이란 책(3권이 영어로 거의 번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번역이 완료되면 카이퍼의 사상이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겠지요. 그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잘 가려내어서 현재 한국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김:**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도예베르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카이퍼리안은 말해도 도예베르디안(Dooyeweerdian)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강:** 도예베르트도 카이퍼리안이었습니다. 카이퍼리안이면서 철학하는 방식이나 틀은 도예베르트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드뷰>에 대답이 나간 적이 있는 헝크 헤이르츠마(Henk Geertsema)나 산드르 흐리피운(Sander Griffioen)(이 두 분은 모두 손 교수님과도 절친한 관계입니다만) 같은 분들은 도예베르디안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예베르디안들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카이퍼리안입니다. 카이퍼리안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종교를 삶의 한 부분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삶이 곧 종교라고 보는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반 러너(H. Evan Runner) 교수의 은퇴 기념 논문집 제목이 <Life is Religion>입니다. 삶의 어느 한 영역도,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카이퍼 전통을 통해 칼빈주의의 핵심은 예정론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만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성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휴식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영역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의 통합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분리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학문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의 삶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하나의 신앙이라 보면 어떤 학문이라도 바탕에는 모종의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퍼리안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integ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 한국 교회가 세상과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이해와 관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목사만 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故)김인수 교수님께서도 한동안 <복음과 상황>에서 "은사가진 사람이 설교해야 한다"는 지상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원을 그려봅시다. 그 안에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원을 그려보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부르신 성도들을 키우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내시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정치영역, 경제영역, 교육영역, 예술영역, 학문영역 등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분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를 받고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 전임 사역자**들과 **비전임 사역자**로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 대부분을 이루는 비전임 사역자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가정과 직장, 시민사회 영역 모두 성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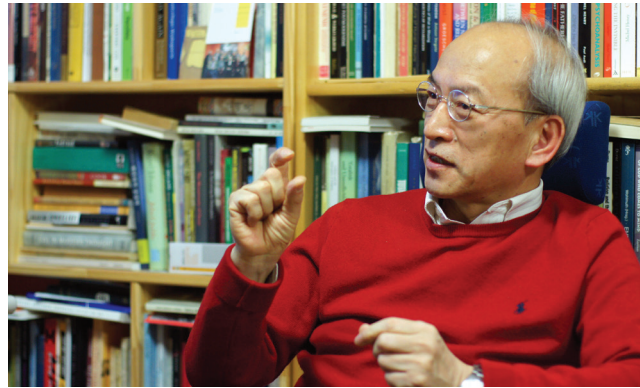
만일 이렇게 본다면 예배 중의 설교는 1차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전임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전임 사역자들과 달리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은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누가 말씀을 더 잘 비추어 권면하고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성숙된 성도들이 장로든 집사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예배중의 설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공부 형식을 취하든 강의 형식을 취하든 간증 형식을 취하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신앙 생활의 분리가 이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설교를 목사의 독점적 권리로 여기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담임목사가 설교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목사가 수십 명 있어도 말이죠. 대개 목양은 부목사가, 말씀전포는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교회들의 모습 아닌가요.**

**강:** 부목사에게 주일 설교를 맡기지 않고 담임목사가 전담하는 것은 목사의 직위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다 같은 목사입니다. 담임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또 부목사들 간에 서열이 있는 것은 사실 천주교 전통과 닮았습니다. 천주교에는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주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이고, 사제는 장로, 부제는 집사의 직분으로 주교-사제-부제 3직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제입니다. 이러한 성직제를 해체하고 새롭게 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것이 목사, 장로, 집사 3직 제도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교사직을 첨가했지요.

현재 목사와 부목사 개념은 천주교의 직분 개념이 개신교에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목사가 같은 목사와 함께 사역한다는 동사(同事)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 사이에 계급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주일 설교는 담임목사가 담당하고 부목사는 교구나 한 부서를 맡아야 한다는 통념이 생겼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성도들과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모른 채 설교만 하는 식으로 고착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 생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자 영역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전임 사역자로 자기 삶, 자기 영역에서의 깨달음과 경험을 교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단순히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곤 하거든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목회하는 분들이라면 이 면을 오히려 저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 알고 계실 거예요.



**강:**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초신자 단계, 구원의 확신 단계, 부단히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고자 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고 볼 때, 목회자의 역할이 신앙의 초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을 부딪쳐 살아내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조명해줄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초신자 교육을 1:1 양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교인들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그렇지요. 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단계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각 분야에서 고뇌하면서 부딪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고 봐요. 첫째,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 둘째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셋째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고뇌에 대한 경험.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춘 지도자들이 투입되어야 해요. 목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원리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삶으로 경험하는 부분은 오히려 성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전문 목회를 위한 신학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강:**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지 않나요?

**강:**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관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 교회 역사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러한 신학적 소양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분화된 신학까진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QT 정도가 아닌 깊은 신학적 성찰과 교회사 전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와 상담, 설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소양 교육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뿐더러 세상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신앙으로 성숙하지 않고 목사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신학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신학적 소양부족(theological illiteracy)에서 벗어나 신학적 해독능력(theological literacy)을 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고 성숙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참된 신학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way of life'입니다. 삶의 방법이자 삶의 길, 삶의 방식이지요. 제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학입니다. 이론 이전에 실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 세계에 대한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듯, 삶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에는 양면, 아니 세 면이 있다고 해요 할까요? 삶 자체가 신학이고 그 삶에 대한 성찰이 신학인 것이지요. '삶으로의 신학'과 '삶의 길로서의 신학',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로서의 신학'을 성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어딘가에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형성하기 위해, 성도로서 제대로 성숙된 지경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theo-logy)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doxo-logy)이 될 수 있습니다.



**김:** 그렇다면 교인 중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설교를 담당하고, 교회의 전임 사역자는 신자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교회 안에 기초적인 신학 과정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화란 개혁교회의 경우,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 훈련이 되어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노회에서 '설교권'을 허락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선생님이시고 저의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반 퍼슨(C.A. van Peursen) 교수님도 설교권을 받아 자주 설교 하셨습니다. 철학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현 시대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 많은 기여를 하셨지요. 물론 성도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토대로 설교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설교는 간증이 아니니까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성도들의 설교 참여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더욱 풍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어떻게습니까? 담임목사님 청빙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압니다만.

**강:** 담임목사 청빙에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제대로 공부한 분이어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주일학교로 흩어져 공부를 하는데, 이처럼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거나 동의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와 삶 속에서 사역하는 흩어진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균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분이어야 했지요. 이 세 가지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언약백성'을 강조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세례 받은 아이들을 성찬에서 배제했습니다. 언약백성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아이들을 성찬에서도 배제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배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세

이후 배제되었지요. 제가 속한 교회는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의 모임을 통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청빙의 1차적 단계는 교회에 대한 이런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빙 공고를 내진 않았습니니다. 목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에게 부탁하여 몇 분 추천을 받았고, 설교도 듣고 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신앙과 삶, 가정과 교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청빙위원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담임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김:**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방식이라 구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요?

**강:** 많이 힘들었지요. 마땅한 목사님을 찾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굴 모셔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껏 목사님이 어린 시절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서는 목회상담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자기 속의 상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주로 가정 문제 혹은 자라면서 만난 관계 안에서의 상처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개인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치유 받도록 학교가 돕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목회자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비슷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신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 대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을 롤 모델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신학교에서의 공부도 일종의 라이선스를 따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신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영적 투쟁과 성품의 변화가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세계관동역회 분들과 함께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존 스토틀 목사님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은 교회 문제는 신학교 문제이고, 신학교 문제는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이런 말이 듣기 싫겠지 만요. 아니, 억울하게 생각하겠지요. 왜냐하면 신학 교수들의 교회 영향력이 옛날에 비해서 크지 않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크지요. 그러니 신학 교수들도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 청빙에 곧장 응하잖아요.

**김:** 지금까지 줄곧 지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강:**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지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위해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전거 비유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정보 획득을 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전거를 보십시오. 자전거 구조와 원리만 수십 번 생각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에 올라타야 탈 수 있습니다. 철학을 해야 철학을 알게 되고 신앙 생활도 해봐야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처럼 중요한 것은 '올라타는 것'입니다. 올라타면 비로소 문제가 생기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신앙 생활도 해봐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올라타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 봐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무신론의 문제, 종교 갈등과 관련된 다윈주의와 배타주의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와 소비주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저는 성도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전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지요. 그래야 자전거인지 승용차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올라타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단순히 'Information'을 얻는 것이 아닌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식은 정보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면,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보고 이야기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바뀌지요.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도 신앙 생활에 '올라타면' 이제까지는 신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것이지요. 공부도 하다 보면 신나게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숙달이 되면 재미가 있고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저는 정보와 변화를 거쳐 즐겁고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정보를 얻다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성숙해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얇은 Information에서 Transformation으로, 그리고 Transformation에서

Enjoyment로 발전된다고 생각해요. 정보에서 변화로, 변화에서 즐김과 누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도 이제 신앙에 관해 말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신앙에 제대로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고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나는 첫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이라고 답합니다.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2단계 그분을 따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3단계에 들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공부, 우리의 삶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 학문 따로 분리되어 사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Learning by Practice", "Learning by Doing", 곧 실천을 통한 배움, 행함을 통한 배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학문, 우리의 교회생활, 이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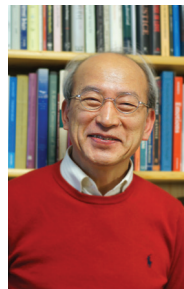
**김:** 앞으로 무얼 하고 싶으신가요?

**강:** 앞으로 몇 년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학문적인 일들로 크게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유럽과 영미 기독교 철학 전통,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 전통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기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상적 삶을 일상적 삶으로 만드는 것은 초월과 연관됩니다. 일상속의 비일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도 힘을 얻는 것이죠.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일상의 영역은 먹는 것, 자는 것, 옷 입는 것, 집짓고 사는 것, 일을 하는 것, 휴식하는 것, 생로병사 문제 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대철학에서 신의 문제입니다. 유럽 철학과 영미 철학 전통에서 발전된 철학적 신학과 기독교적 인식론을 지금 한창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두 과제는 학문적인 프로젝트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봉사과 관련된 일입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에 관한 강의를 해왔고 이미 부분적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 관해 묻는 책 한 권을 마무리하고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세 가지 도전에 관한 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무신론의 문제, 종교 갈등과 관련된 다원주의와 배타주의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와 소비주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써는 성도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관동역회에도 좀 더 자주 나가야겠지요.(웃음) 한국철학회 회장직은 얼마 전에 벗어났고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직은 아직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된 인문학대중화위원회 위원장 일도 다시 맡았습니다. 고신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일에도 헌신할 것입니다. 결국 저의 삶은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대학, 기독교 윤리, 이 세 축, 삼각구조가 하나로 어우러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월급 대신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게 큰 변화라면 변화겠지요.(웃음)

**김:** 정말 기대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칸트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강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등이 있다.

아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 열 가지 약속

## 날마다 읽어 주는 그림책

엄마의 뱃속에서 아빠의 품속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 갈 수 있도록 매일 들려주는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 엄마가 보고 아기가 듣는 그림책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줄 때마다 마주하는 일러스트 주인공의 행복한 미소는 읽는 이의 얼굴도 환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시은 글·그림/A4변형/전면 컬러/30면/10,000원



마음에 새기는  
약속 .....

가슴으로 느끼는  
..... 예수님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분”



# 냄새 나는 예수

예수님은 생애 동안 소와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몸에서 냄새가 나는 법. 늘 먼지투성이의 신발을 신고 그들 사이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몸에서도 자주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김경열 지음/민음의글들 326/A5변형/296면/12,000원



# WORLDVIEW SPECTATL

##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인가?

-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지식을 교만이라 여기다가  
무지가 미덕이 되고,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장벽을 만든  
한국 기독교.

두 장벽 사이에  
윤리도 가치관도 없어  
무례하기 쉽상인  
한국 기독교에  
과학, 기독교가 상관없는지 다시 묻는다.

아테네(지성)와 예루살렘(신앙)이 상관없다고?



생명이  
첫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어둠과 사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잔인한 4월의 세월호 참사로 3백여 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눈앞에 아직 다 잠기지 않은 뒤집어진 배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보아야했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외치는 우리 자식들의 비명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공범자요 살인 방조자일지도 모른다.

이제 세월호는 2014년 세월 속에 묻히고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펜션 화재, 이어지는 어선 침몰 사고, 토막 살해된 시신...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구타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어린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을 못 이기고 일찍 생을 마감하며, 아파트 경비원과 실직한 어른들은 마지막 자존감을 침해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난해도 자살공화국 1위 자리를 지켰다.

**어둠의 터널 끝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긴 터널을 운전하고 가다보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행여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작은 한줄기 빛이 나타나면서 눈부신 광명을 맞이하게 된다. 터널은 마침내는 끝나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으며, 벽을 벽이라 생각지 말고 문이라 생각하며 밀어보면 그곳에 문이 열린다고도 했다.

C.S.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남매가 벽장으로 들어가 벽을 밀고 나아



가자 환상의 세계 나니아가 펼쳐진다. 우리에게 벽은 없다. 단지 주춤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부정의 벽이 그저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2014년이란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해를 맞이했다. 물론 2015년이 우리에게 눈부신 빛으로 다가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터널은 반드시 밝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이 존중받으며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밝은 세상은 언제 올 것이며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물량주의, 자본주의, 성장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과연 얼마나 소중히 지켜왔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뱃속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의 잔인함과 마주하게 되며,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의 배경에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과 드라마의 선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돈을 숭배하는 어른들의 배금주의와 이중성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생명은 돈과 쾌락에 밀려 우리들의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났다.



박상은 안양 생명원 의료원장이자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오랜 동역으로 이사 및 <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 생명, 더 넓게 생각하라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야 한다. 안전의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돈이나 명예, 쾌락에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명제다. 생명은 한번 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아무리 작고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또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라 할지라도 인간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목적적 존재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다.

암매장 당하는 소녀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낙태당하는 태아의 비명을 들을 수 있으며, 토막 살해된 주검은 갈기갈기 찢겨진 어린 생명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한 형법학자는 이런 끔찍한 살해사건을 이미 낙태술로 오랫동안 습득되고 반복된 범죄의 행위가 바깥으로 표면화된 사회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이렇듯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인공 유산, 여아살해, 장기매매, 안락사 등—이 성문란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급기야 폭력과 살인을 위시한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새로운 기술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다음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불임 치료, 자신의 입맛대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타입의 정자와 난자를 살 수 있는 세상, 태아 세포 이식술,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 장기 수급 부족의 대책으로 등장한 뇌사문제,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의 안락사 시비, 복제 양으로 야기된 인간 복제논란, 모두가 의료인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문적인 윤리문제들이다.





##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세계관

이러한 생명윤리 이슈들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사람은 자라면서 경험하고 배운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세계관이라고 한다. 결국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백 명이 있으면 백 개의 세계관이 있는 것이며 오천만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오천만 개의 세계관이 함께 모여 있는 셈이다. 이를 단순히 둘로 나눈다면 생명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관과 상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세계관은 어떤 인간 생명이라도, 가령 중증장애아아든 치매환자든 말기암 환자라도, 인간 생명이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을 지녔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의 태아때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 생명은 목적적 존재로서 결코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다.

반면, 인간 생명을 상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관은 인간 생명이라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뇌 손상으로 지능이 사양개보다 떨어지는 중증장애아나 더 이상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낮은 질의 인간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생을 마감함으로써 나머지 생명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아가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간 생명이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오늘, 당신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소수의 인간 생명의 가치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며, 쾌락과 권력을 누리 기 위해 얼마든지 인간 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 아래 우리 모두가 속박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제 우리 모두 생명존중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생명존중현장은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및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중성을 교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만들어질 안전매뉴얼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사회지도층,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실천해내는 생명존중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봄, 어김없이 새싹은 돌아나며, 생명은 기나긴 겨울의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강한 생명력을 드러낼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 이 찬란한 2015년 봄, 마침내 생명존중현장이 만들어짐으로 생명존중의 원년이 되길 모두와 함께 간절히 소망해본다. 

※ "함께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와이드 칼럼으로 "월드뷰"를 신설하여 본지의 칼럼 중 한편을 공동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생명이 첫째입니다" 칼럼은 2/28일자 국민일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과학

## 위험한 사회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이 진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이 가족을 위해 희망을 찾아 나가는 고생길이었음을 그리고 있다. 감독은 마지막에 주인공 덕수를 통해 전쟁 통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여정이 ‘정말 힘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영화관을 나서면서 그 말이 자꾸 거슬렸다. 그렇게 봐주고 싶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 덕수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억수로 운이 좋았지예”라고 말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영화가 단지 도덕 교과서나 파독·파월용사의 무용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당면하고 있는 ‘희망을 찾아 고생하고 싶어도 고생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한 사회의 새로운 고통을 배려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배고픈 고통속의 희망’이 아닌 ‘배부른 안락속의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은 하지만 선불리 아이는 낳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겐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의 이기심을 탓하기 전에, 윤리적 당위성을 훨씬 압도하는 위험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개발로 삶의 향상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영향을 긍정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포함시켜 놓았다. 한 번 패러다임화 된 사고방식은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무르려는 관성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대중화되고 이념화되었다. 과학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의 대표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과학수사는 범죄 심리와 윤리적 차원을 능가하는 판단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별히 개발국

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 재건의 이념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부정의, 그리고 고통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악취가 진동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는 더욱 심한데 그 진단은 불가사의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벌어서 가족을 일으키고 자식을 키웠다. 자동차도 생기고 집도 생겼다. 그리고 여유도 생겼기에 외식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다닌다. 돈을 쥐고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만큼 돈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도 없다. 호주머니에 두둑이 넣어둔 돈을 보고 갑자기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모시려 든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자랑한다. 1990년대에 가전제품의 A/S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상품과 서비스를 다루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는 정말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상한 병폐가 생겼다. 비즈니스 패턴에서의 왕을 신분적인 왕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더니 갑과 을 사이에 병이 끼어들어 갑질을 시작했다. 소비자가 갑이고 고용주(기업)가 을이어야 하는 생태계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린 것이다. 소비자를 빗대어 고용주가 고용인(병)을 을로 만들었다. 국민이 갑이고 정부가 을이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정부가 갑이 되고 국민이 을이 되어 버렸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정보사회의 등장을 알렸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이룩한 하드웨어적인 제2의 물결 즉, 산업사회를 이어받아 소프트웨어적인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의 후속 세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보사회라는 것이 전혀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사회가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일으켰듯이 정보사



**박문식** 한남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서 설계분야를, 교양대학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교양융합대학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우중공업 항공우주연구소 및 보잉그룹에서 항공기 설계개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남대학교의 괴테개인전도회(신우회) 회장으로 섬겼으며 현재 한남대학교회에서 국제학생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이자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회는 인간성 고갈과 관계변화라는 문제를 낳았다. 지구의 자연이 병든 것처럼 인간의 마음 공간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이 황폐해진다면 그것은 환경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국부와 국가 경쟁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는 자살율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청년실업률의 문제, 그리고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공동체적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상당한 수준의 병폐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타계한 율리히 벡은 이런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였다. 그는 근대화의 물결을 '거대한 위험의 체계적 생산'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막으려면 경제적 부를 희생해서라도 '성찰적 근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알면서도 전혀 그 위험을 피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반성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선진국이 되어서 뭘 하겠는가? 교육은 무얼 했나? 인문학은 무얼 했나? 그러나 여기서 질문을 던지며 청문회를 요청하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다. 과학기술은 무얼 했나? 위험한 사회는 누가 만들었나?

## 기술사회

과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술은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원리들을 확장 응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도구나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제3의 물결이 왔고 위험사회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마치 창세기 3장의 왜곡과 타락을 모른 채 창세기 2장만을 읽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와 기계로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창세기 3장과 같은 기술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 기술사회의 선지자 자크 엘렐이다. 도구로서의 기술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 선용이 될 수도, 오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자체가 스스로 효용성을 규정짓는 체계가 되었다. 마살 맥루한의 명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처럼 '기술은 효용이다'라고 말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기술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추구'로 일종의 담론,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다.

유럽에서 발흥된 과학기술 혁명은 정확히 기술사회로서 보이지 않는 정부와 같은 형태로 체제화되었다. 기술사회의 자기확장성, 상호결합성, 보편성은 경제기술로, 조직기술로, 인간기술로 구체화되었다. 경제에서, 정부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모두 '단 하나의 최고의 수단을 추구하는 태도'만을 지향하고 있다. 기술사회에서 정부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인정하는데, 경제인으로서 인간은 자본이며 생산·소비 복합체가 된다. 국가는 최고의 효율적인 기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민들은 안전과 행복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이제 더 이상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없어도 훌륭히 유지·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자동화와 정보화는 자율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판단하고 결정한다. 사람들의 활동과 서로의 인간관계도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기계를 통하면 애완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고 심지어 사물과도 통신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은 기계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성은 몰수되어 가는 중이다. 기술사회에서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보라.

## 과학자들

나는 천안함과 세월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비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인지와 사고의 축수가 망가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 과학자 그룹에서조차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은 현대사회의 왜곡된 인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케 하는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한 동안 윤리경영을 프로파간다로 내세웠지만 진정성이 없었고, 시장 자본주의의 기동이라 할 수 있는 윤리적인 면모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정부의 핵심부에서조차 말 바꾸기와 꼼수, 모르쇠를 버 것이 자행하고 있다. 철학과 도전과 소신은 없고 오로지 지지율 숫자와 당리당략의 최대의 효용성만이 추


구된다. 정당은 정권교체가 정체성이요, 대통령은 당선선이 최선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학이 무엇이며, 과학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과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학문의 영역이며 인간의 탐구 대상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기술사회와 위험사회의 운영체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시종으로서의 과학이 되어야 하며 학문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동력이 크면 클수록 더욱 민감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문제는 과학자들이다. 과학기술이 대중과 가까워지면서 대중은 과학기술을 숭상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효용성의 프레임에 갇혀 성과를 찍어내는 직공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분위기는 연구기관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국내 모든 대학들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과학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들이 고립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이 성과주의에 함몰되다 보니 역사와 단절되고,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인간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과학자는 최고의 성찰적 전문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양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찰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과는 담을 쌓고 있다.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산적해 둔 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전진 앞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상상력은 고갈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력마저 이론이나 실험의 방법론에 의해 어떻게 하면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을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들에게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는 자비심에서 상상력이 대단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녀가 말했듯이 만일 그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녀는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만 바라보면서 지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곧 이 땅의 고통의 문제와 땅 위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심력을 다해 상상해야 한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공상과학영화이지만, 이 땅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하고 먼지폭풍만 일으키는 현실적인 고통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이 신선하였다. 교육현장에서 보는 스마트폰 세대의 특징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소통하고 세상의 모든 고급지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딛고 있는 땅과 자기 인간적 실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 또한 흙(자연)을 만져보지 못했고 자신의 삶이 그 흙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그들이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사회와 위험사회를 초래하였다. 땅을 딛고 살지 않는 우리 후세대들은 상상력과 심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공중에 부양한 것처럼 떠돌다가 결국에는 추락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시대의 고통을 읽고 거듭난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술사회의 가장 완벽한 구현체이며 인간은 자기의 안전과 복지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성의 회복 없는 인간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는 국민소득이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이제 최선의 성찰적 과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 교회는 성찰적 과학을 위한 상상력과 윤리적 심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성찰적 과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 

# 과학, 실재 그리고 성경

작년 3월 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는 선정적인 표지로 눈길을 끌었다. 안경을 쓴 한 지식인이 화형을 당하는 그림이었다. “이 단”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그림 속의 주인공은 뉴욕대학의 저명한 원로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왜 화형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논란의 발단은 그가 2012년 가을에 출판한 『마음과 우주』라는 저서였다. 이 책의 부제는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유물론적 신다윈주의 자연관이 거의 확실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지식사회의 성배인 유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음과 우주』에 대한 공격적 서평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급기야 『가디언』지가 선정한 “2012년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된 과학서적 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유물론이 오늘날 지식사회에서 얼마나 첨예한 이슈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음과 우주』가 출간된 지 한 달 후 영미권의 대표적인 유물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자연주의를 진전시키며(Moving Naturalism Forward),”를 기치로 내 건 이날 회동은 사실 이 책을 염두에 둔 모임은 아니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신』을 출간한 이후 가열된 소위 새로운 무신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임이었다. 새로운 무신론의 대표적인 특징은 과학이다. 이날

모임의 핵심 참석자들도 과학자나 과학적 철학자였다. 갈택의 물리학자 셉 캐럴이 조직한 이날 모임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진화생물학자 도킨스를 위시해 물리학의 스티븐 와인버그, 인지철학의 대표적 인물인 대니얼 데닛 등 거물급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에 걸친 컨퍼런스는 유튜브로 방영되었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의식, 자유의지, 윤리, 의미, 목적, 결정론 등 하나 같이 삶의 핵심어였다. 특기할 점은 이 모든 논의들이 과학적 논의를 등에 업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실재가 유물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 시대 대표적 유물론자들이 보여준 유물론의 향연이었다.

『마음과 우주』에서 네이글이 비판한 유물론의 핵심에는 모든 현상이 물질로 환원된다는 환원주의가 자리한다. 유물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실재는 오직 물질뿐이다. 물질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상에 불과하다. 당연히 초월적인 영혼, 신의 존재는 부정된다. 물질 이상의 것이라 여겨져 왔던 생명과 정신도 본질적으로 물질이며, 물질로 환원해 설명가능하다고 본다. 다윈 이전에는 생명과 정신의 존재를 물질로 설명하기 어려워 초월적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선택이라는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유물론자들은 주장한다. 생명과 마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물질로 환원해 설명하려는 유물론 프로젝트가 신다윈주의로 완성된 것이다.



박희주 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호주 멜번대에서 과학사를 전공했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주된 관심이 있다. 미국 진화론 논쟁사에 대한 연구로 한국과학사학회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역서로는 『생명체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논쟁, 최근 50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등이 있다.

나이글은 유물론을 반대하지만 유신론자는 아니다. 또한 진화론이 전적으로 틀렸거나 무용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생명의 탄생에서 의식의 탄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연선택으로 설명하는 신다윈주의의 과도함이 문제이다. 나이글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나이글은 유물론도 유신론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한다. 그가 제시한 제3의 길은 목적론이다. 자연에는 생래적으로 생명과 의식을 탄생시키는 목적론적 특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유물론적 신다윈주의 자연관에 대한 그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관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나이글의 시도가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무엇이 무신론자 나이글로 하여금 현 지식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만든 것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할 노년에 불을 끌어안게 만든 것일까? 두 가지만 들기로 하자.

먼저 의식의 불가해성을 들 수 있다. 신다윈주의가 정신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면 현대의 신경과학은 정신의 작동에 대해 설명한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신경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작용이다. 그렇다면 신경회로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벽하게 밝혀내면 의식의 신비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나이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과 주체가 갖는 주관적 경험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글은 1974년 “박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기념비적 논문에서 이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바 있다.

박쥐는 잘 알려져 있듯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나이글이 던지는 질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쥐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다. 박쥐에게서 어떻게 초음파가 발사되고 수신되는지, 수신된 정보가 박쥐 뇌





의 신경회로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신경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밝혀내었다고 하자. 우리는 과연 박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저 캄캄한 동굴이지만 박쥐는 우리와는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다. 과연 그 경험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내가 박쥐가 되지 않는 한 그 경험은 공유 불가능하다고 네이글은 지적한다. 느낌, 주관적 체험은 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어떤 것이며 객관화되거나 공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글은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체험은 신경과학에 의해 뇌의 정보처리과정이 완벽하게 밝혀진다 할지라도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의식은 유물론적 다원주의나 신경과학이 전제하는 자연관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윤리적 선택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 인간의 마음이 신경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작용이라면 다시 말해 신경회로망의 전기화학적 작동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면 자유의지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우리의 윤리적 선택 역시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프로그램된 로봇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윤리적 선택이 환상이 된 인간에게도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궁극적 근거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살인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 자유의지의 증발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사회시스템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는 정치철학자이기도 한 네이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데닛 같은 하드코어 유물론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타협책을 제시한다. 대중에게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강조하면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을 테고 따라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대중이 느끼는 방식으로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말하자는 것이다. 실제 과학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는 꿈수에 불과하다.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자유의지의 존재

를 인정할 경우 법정에서 발생할 자기모순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예컨대 법정에서 살인범이 유물론이 말하는 과학적 진실을 인용해 자신의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신은 살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유물론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죄값을 물을 수 없고, 죄값을 묻기 위해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유물론자는 자신이 믿는 과학적 진실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예에서 보듯 신경과학이 전제하는 유물론적 자연관은 사회체제의 존립과 심각한 부조화를 이룬다. 네이글은 이러한 부조화가 유물론적 자연관에 존재하는 중대한 결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이상 실재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유물론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세계관은 실재를 규정한다. 유물론적 세계관이 인정하는 실재는 물질 뿐이다. 신과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과 정신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물질이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실재는 이와 다르다. 창조주가 존재하며 물질은 신의 창조물일 따름이다. 생명과 의식을 가진 인간도 피조물이다. 궁극적 실재는 신이며 물질, 생명, 정신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유물론자들의 믿음과 달리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신의 창조행위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 물질세계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물리적 세계는 근본적 변화의 도상에 있는 잠정적인 존재일 따름이다. 실재를 궁극적이고 변치 않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실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의 큰 틀에서 물질세계는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 유물론자에게 있어 물리적 실재는 모든 것이며 이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과학이다. 이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놀라운 성취를 강조하며, 과학을 통해 실

재에 대한 궁극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은 과학에 대해서도 유물론자들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 오면서 필자가 가장 깊이 느낀 점은 과학은 잠정적이며 변한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역사를 통해 과학의 내용은 늘 변해왔으며 심지어 그 목적과 방법도 변해왔다. 18-19세기 유럽에서 그토록 확실시되던 뉴턴의 역학도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으로 대체되지 않았던가.


과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이 작동하는 근본적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고대 그리스 과학의 핵심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자연을 목적론적이고 유기체적으로 해석했다. 현대과학은 기계론적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생명에 빚대어 자연을 이해했다면 현대과학은 기계적 메커니즘에 빚대어 자연을 이해한다. 둘 다 자신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이해방식이다. 만일 감각기관과 인지기관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할까?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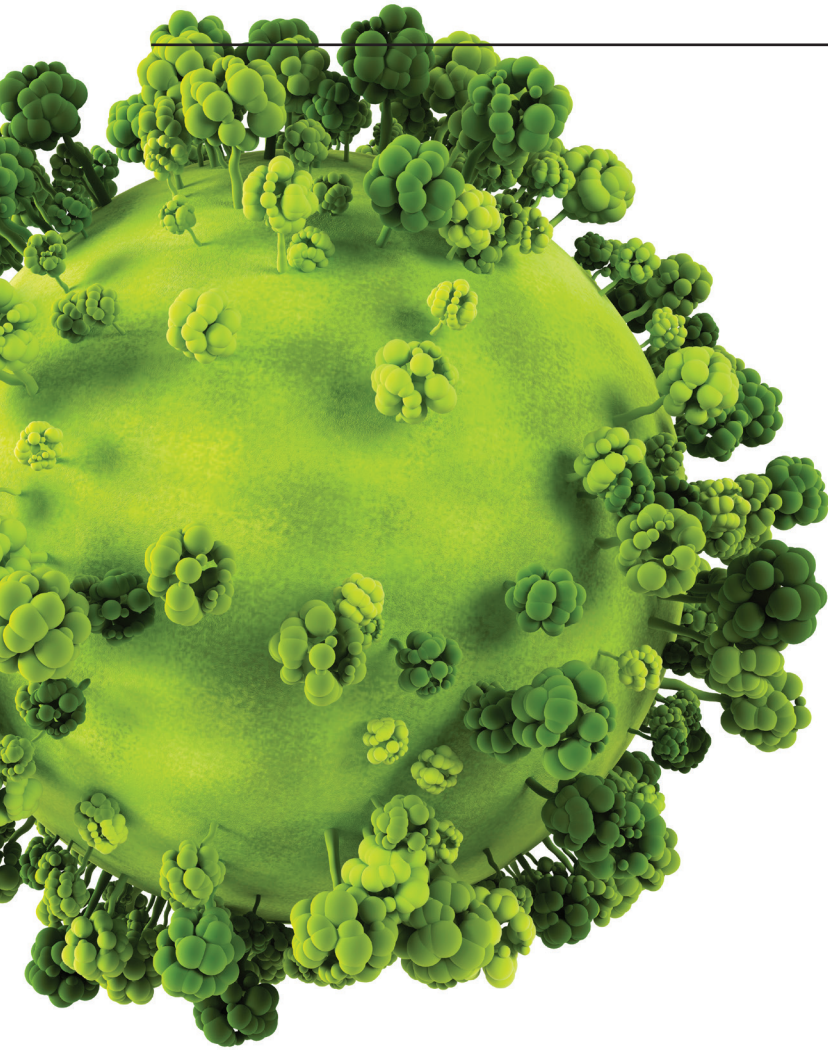
과학은 역사를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변할 뿐만 아니라 탐구의 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현대과학은 실험과 관찰에 기반을 두며 관찰 및 측정 가능한 현상만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현대과학이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침묵이다. 관찰과 측정 가능한 현상에만 방법론적으로 탐구대상을 제한하는 이러한 현대과학의 특성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신의 부재가 현대과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과학의 이러한 특성을 심각하게 곡해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에서 신이 사라진 것은 신이 과학의 탐구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이지 과학이 신의 부재를 증명했기 때문

이 아니다. 신의 부재는 유물론이 취한 전제일 따름이다. 기독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유물론자들의 지나친 과학주의에 반발하여 조건반사적으로 부정할 일은 아니다. 앞서 지적한 과학의 특성과 한계를 잘 인식한다면 오히려 과학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된다.

첫째,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용해 문명을 이룰 수 있다. 과학기술은 소위 문화명령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다. 어떤 문명을 건설할지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고, 문화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다. 자연을 맡은 청지기로서 인간은 자연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날 자연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인의 책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보살피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색을 통해 신학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오늘날 신학에서는 자연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한 존재라면 신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을 품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때 신학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과 물질과 정신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느껴질수록, 과학을 앞세운 유물론적 담론이 거세게 밀려올수록 신학은 과학과의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교회는 젊은지구론을 넘어서야 한다

블랙홀과 우주여행이 소재가 된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에 천만 관객이 들었다. 우주와 블랙홀을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다보니 다양한 질문을 받는다. 웜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블랙홀을 통한 여행이 가능한지, 블랙홀 근처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화를 보면 밀러 행성에서 보낸 1시간이 지구의 7년에 해당된다는 점이 신기하긴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시간지연 효과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인터스텔라(interstellar)라는 말은 별들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광대한 우주공간은 사실 대부분 인터스텔라라고 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우주로부터 영감을 받고 우주를 탐구했지만 여전히 우주는 신비롭다. 그러나 과학은 우주 역사를 조금씩 밝혀 왔고 우리는 장구한 우주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캘리포니아대(UCSB)에서 연구원으로, 나사(NASA) 허블펠로우십을 받아 UCLA에서 연구했다. 저서로는 『블랙홀 교향곡(동녘사이언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가 있으며』(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과학은 우주가 진화한다고 알려준다. 우주가 시간에 따라 변했다는 뜻이다. 매우 작았던 우주는 점점 팽창하여 빛의 속도로 백억 년을 날아간 거리보다 더 커졌다. 그 긴 역사 동안 우주는 마치 아기가 성인으로 성장하듯, 암흑물질이 중력으로 뭉쳐져 우주의 뼈대인 거시구조를 이루었고, 뭉쳐진 가스에서 태어난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오색찬란하게 수놓기 시작했다. 별들의 죽음에서 탄생한 블랙홀들은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킨다. 우주가 시작된 지 약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우주 공간은 수천억 개의 은하와 별, 그리고 블랙홀이 역동적인 드라마를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본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영화에 암시된 외계인이 신적 존재는 아닌지, 우주를 초월한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물론 과

학이 모든 것에 답할 수는 없다. 과학은 데이터에 기초해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해낼 뿐이며, 경험적 현상을 넘어 모든 종교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주의는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과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과학을 적대적으로 보는 견해다. 대표적 입장으로 창조과학을 꼽을 수 있다. 젊은지구론(young-earth creationism)이 주류입장인 창조과학은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과학교과서처럼 읽으며 그에 따라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천지창조의 연대가 약 1만 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과학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풍성함을 얻는 견해다. 성경과 자연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한 두 가지 책이라는 전통에 입각해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하나하나 이해한다. 이들은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부여한 물리법칙을 통해 우주의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창조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드러낸다고 믿는다.

지구 나이 논쟁은 더 이상 과학의 이슈가 아니다.

젊은지구론 창조과학은 기독교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평생 창조과학만 알고 지지했던 크리스천에게는 이 질문 자체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창조과학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17세기 아일랜드의 주교 어셔는 창세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창조가 기원전 4004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10월 23일 일요일에 창조가 시작되었고 11월 10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계산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사람들은 지구의 연대를 수천 년 정도로 매우 짧게 생각했다. 17세기까지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젊은지구론을 믿었던 당대의 상식은 이해가 된다. 물론 현대의 구약성경 신학자들은 이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근대과학이 성립하고 자연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탈신화화가 이루어졌다. 지구연대에 관해서도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다. 18세기와 19세기 초를 거치면서 지구 나이가 6천 년가량된다고 생각했던 전근대적 상식에 반하는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이 나왔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질학계에서는 지구가 매우 오래 전에 생성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된다.

젊은지구론의 오류가 점점 확실해지자,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등장했다. 6일 창조로 해석하던 젊은지구론을 넘어 간격이론, 날-시대 이론, 성숙한 지구론 등이 등장했다. 이런 노력들은 과학이 보여주는 오래된 지구와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었고 흔히 조화주의 혹은 일치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치론적 관점을 취하여 과학적 발견과 성경의 내용, 특히 창조의 순서와 연대를 조화시키려 했던 내용들을 보면 작위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20세기가 되면 지구가 오래되었음은 명백해진다. 대륙 이동이나 빙하층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으로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지구뿐만이 아니다. 달 탐사에서 가져온 달의 운석과 소행성에서 떨어진 운석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46억 년을 가리킨다. 지구와 태양계가 46억 년전에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태양계를 넘어 우주를 다루는 천문학에서는 수십억 년 전 과거의 은하들을 직접 관측하고 연구한다.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을 비롯한 과학 전반에 오랜 지구를 가리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우주를 매우 오래 전에 창조하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중후반에 창조과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젊은지구론이 부활했다. 극단적 문자주의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안식교에서 성장한 조지 프라이스는 그랜드캐년과 같은 지질현상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 생성되었다는 홍수지질학을 주장했다. 과학자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 홍수지질학은 헨리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창조과학의 핵심 주장이 된다.

젊은지구론이 맞다면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과학이 거짓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과학을 부정하는 창조과학의 입장에 물론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 나이만 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내놓

지 못한다. 대신 지구가 매우 오래되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찾아내어 과학을 흠집내기에 열중한다.

물론 반증을 찾는 일은 과학적 방법이다. 하지만 반증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과학을 뒤집는데 혈안이 된 과학자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당장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천동설을 입증하려는 과학자가 없듯이, 압도적인 증거로 결론이 난 지구연대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의 이슈가 아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젊은지구론은 거의 천동설 수준이다. 오십 평생을 살았지만 지구의 움직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지동설이 틀렸다고 주장한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신앙과 과학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젊은지구론의 증거가 많다고 들었다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창조과학자들이 교회들을 돌며 젊은지구론을 퍼뜨렸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젊은지구론과 현대과학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매우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이다. 만일 창조과학의 주장처럼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틀렸고 지구와 우주의 연대가 정말 1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학을 잘 모르는 교인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과학연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노벨상은 물론이거니와 과학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과학계가 자연주의에 몰들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소용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가 차는 음모론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관련 분야 과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의 부재는 창조과학의 태생적 한계다.

성경은 창조의 방법이나 순서를 과학적으로 알려 주려고 쓴 책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책이다.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읽어내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책, 자연을 보라. 자연은 창조세계가 매우 긴 시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창조되었음을 알려준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과학을 대비시켜 성경이 옳고 과학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은 모순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낸 해석인 과학이 불안전하듯,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낸 해석인 신학 혹은 우리의 성경 읽기도 불안전하다. 과학과 성경을 대비시켜 우월을 가리는 시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 젊은지구론과 현대과학의 충돌은 성경과 자연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근본주의 성경해석과 현대과학의 충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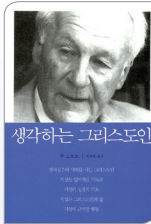
창조과학의 잘못된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오히려 신앙에도 걸림돌이 되고 만다. 이름만 과학인 창조과학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도 젊은지구론 수준의 쓰레기로 취급하여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젊은지구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걸림돌은 이제 심각히 돌아봐야 한다.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현대과학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창조과학처럼 비과학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과학과 신앙, 그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자연과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믿는 자들에게는 과학이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만든다. 인터스텔라의 우주에 담겨 있는 창조주의 손길이 경이롭고 신비하지 않은가? 

※ 필자주 : 이 글은 최근 밴쿠버크리스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 하노라 \_엡 3:14-19



##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반지성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함

저자 존 스토틀 | IPI 7,000원

원제 | Your Mind Ma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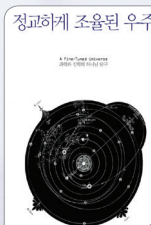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천박함이란 죄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 냉랭하고 기쁨 없는 지성에 갇힌 기독교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은 ‘지성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한다는 뜻인가? 체험은 교리보다 정말 중요한가? 성경의 조명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지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존 스토틀가 이러한 질문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강연한다. 이 작은 책에서 그는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국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궁극적으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의해 불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강력하게 호소한다.



##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의료

저자 김만철 | 아바서원 | 22,000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의료의 원리, 첨단의학, 의료와 성경 등을 다룬 독보적인 책!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은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임상시험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저자는 30여 년간 의료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일하며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지배적인 유훈론적 세계관의 문제점과 결과를 비판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다. 전반부에서는 의료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반드시 세계관을 그 기초로 삼고 있음을 논증한 뒤에 첨단의학의 배후에 있는 세계관과 이상들을 낱말이 파헤치고 비판하며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을 비교한다. 후반부에서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의료와 성경적 의료의 전제가 되는 개념들을 제시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례로 삼아 필요한 원리들을 도출한다. 결론부에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성을 역설한 뒤에 거듭난 의료의 특징을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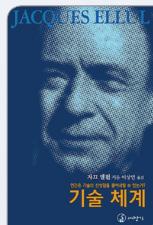
##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과학과 신학의 하나님 탐구

저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 IPI 26,000원

원제 | A Fine-Tuned Universe

자연 신학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

19세기 이후 분야가 몰락하여 학문 세계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린 ‘자연신학’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과 함께 또 하나의 계시의 책으로 여겨지는 자연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읽어 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자연신학은 종종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일로 이해되었고, 18세기에 오면 좀더 좁은 의미로 신 존재 증명에, 19세기 말에 이르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자연신학의 본래 의미와 위치를 설명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현대의 자연과학의 발견들을 통해 어떻게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과 신학의 의미있는 교류가 어떻게 가능한지, 더 나아가 신앙과 학문, 예술의 교류가 어떻게 서로 풍성한 선물 교환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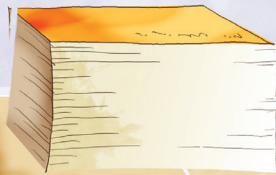


## 기술체계

인간은 기술의 신성함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저자 자크 엘뤼 | 대장간 | 24,000원

엘뤼는 기술의 진보를 비판하고 “진보”를 적대시하는 꿈쩍한 자로 여겨지는데, 이는 인간의 자유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기술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기술은 자체의 논리를 따르면서 스스로 성장한다. 엘뤼이 본 기술은 민주주의를 깔아뭉개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며, 문명을 획일화한다. 기술은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이 책은 “타락한 사회에 질서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인가, 효율적 조직체를 허용하기 위해서인가, 이루어진 엄청난 진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인가, 인간에게 거기에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인가?” 와 같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 유·초·중등(서울 캠퍼스) 2015년 신입생 현재 모집중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유치부 및 초등 과정은 각 과목의 **문법 단계**(Grammar Stage), 중등 과정은 **논리 단계**(Logic Stage), 그리고 고등 과정은 **수사 단계**(Rhetoric Stage)로 가르칩니다.

## SICA의 교육 특성 Education Advantages

### Classical and Christ Centered Education

기독교적 고전교육으로 가르칩니다

### History-based Curriculum

역사로 통합하여 가르칩니다

### Biblical Worldview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홈페이지 [www.sicakorea.org](http://www.sicakorea.org) | 주소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문의 02.557.7710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10만 번, 10만Km

청년연단  
마녀사냥과 연애 담론의 시대



# 10만 번, 10만Km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을 시작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작동하는지, 폐에 이상이 없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제 생긴 여드름 상태가 어떤지, 상처가 아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있어도 말이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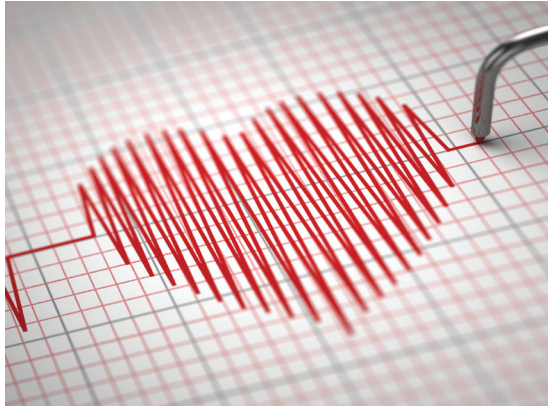
뇌? 심장? 폐? 위? 아니면 눈이나 피부?

사실 우리의 몸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하나의 완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장기가 다른 장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생겨나서 기능을 시작하는 장기가 있다. 바로 심장이다. 심장은 수정이 된 후 3주 정도 지나면 뛰기 시작한다. 물론 심장이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기까지는 분자나 세포 등의 엄청난 상호 작용이 있다. 기본적으로 심장은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중요하다. 심장의 근육은 혈관벽의 근육 일부가 심장 근육으로 특수하게 변화되면서 형성된다. 그런데 심장근육만으로는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할 수 없다.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어야 한다.

심장 박동은 심방 내에 있는 특수한 신경조직이 자체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전기적인 자극을 내보내면서 시작한다.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작은, 키(?)가 4mm도 안 되는 어린 태아의 몸속에 심장이 생겨서





뛰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정 후 6주 정도면 이러한 신경조직이 심장 전체에 퍼지면서 초기의 안정적인 심장 박동 형태를 갖춘다. 그러다가 10주경에는 분당 170회 정도, 14주경에는 약 150회를 거쳐 임신 20주경부터 임신 후반기까지는 140회 정도로 안정된다.

성인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60~90회 정도가 정상이다.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배출하는 피의 양은 약 50~80cc로 하루 평균 7,000리터 정도의 피를 전신으로 보낸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수축한다. 수정 후 3주경부터 뛰기 시작한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약 10만 번을 뛰고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평생 27억 회 이상을 뛰는 셈이 된다. 우리 혈관의 길이는 약 10~12만km로, 이것은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도는 길이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우리의 심장은 매일 약 10만 번 뛰면서 10~12만km의 혈관에 피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태아의 몸속에 심장이 생겨나고 정해진 위치에 자리 잡기까지는 실로 복잡하고 정교한 작전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발생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의 몸 안에 각 장기가 정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심장이 뱃속이나 어깨 위에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초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다. 창조 섭리의 세밀하고 정밀한 조정이 있기에 각 장기들이 현재의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각도와 두께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심장 세포들이 얼굴과 목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얼굴을 발달시키기 위해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심장조직이 밑으로 눌리면서 심장이 우리의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심장은 우리의 가슴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흔히 심장이 가슴 왼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의 끝인 심첨부가 왼쪽을 향하면서 심장 박동을 약간 왼쪽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이 박동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을까?

진료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검사 중 건강한 태아의 심장박동이 3~4초간 멈추는 게 아닌가? 경험이 적을 때는 내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태아의 심장이 안정되는 20주경 이전에는, 드물지만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경우가 있다. 2% 정도의 태아에게서 부정맥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사실을 미처 몰랐을 때는 태아의 심장이 멈춘 4초간이 마치 광야 40년처럼 느껴졌다. 심장도 전신적인 상태나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에서 벗어나 아주 잠시 불규칙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큰 영향은 없다.


이제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처럼 느껴지는가? 그러나 심장 박동은 뇌간의 연수부에서 정교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못한다. 또한 소화기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의 근육은 하루에 10만 번을 뒤틀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몸의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없이는 서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이어주는 심장과 혈관의 활동은 우리 몸이 하나임을 가르쳐 준다.

오늘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잠들었으면 한다.

오늘도 10만 번을 뛰어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돈 우리의 심장에 속삭이자.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그러나 계속 뛰어야 해...” 

# 마녀사냥과 연애 담론의 시대



기독교 안에서 가장 빈곤한 담론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연애 담론'이 아닐까 싶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봉사, 방언, 윤리적인 삶과 같은 담론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세속적인 대화 소재처럼 여겨져 천대받곤 한다. 그러니 대체로 교회 안에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대화는 눈치 보며 숨겨진 자리에서나 겨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 더욱 서툰고, 낮은 경우가 많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 사회 자체가 좀 보수적인 면이 강해서 연애 문화가 그동안 많이 서툰 면이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사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서툰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성적인 대화라든가, 연애와 관련한 대화들은 대체로 공적인 자리에선 배제되어지고, 숨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연애 문제는 삶의 우선 순위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사실 실제로는 그런 주제에 매우 관심있어 하면서 말이다. 오죽하면 청년들의 대화 소재는 사회나 정치와 같은 거대 담론에서 시작해서, 연애 관련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갈매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성 담론과 연애와 같은 주제들의 대화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거리낌없이 그런 대화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파급 속도는 마치 힘써서 손가락으로 눌러 압축시켰던 스프링이 손을 떼는 순간 용솨음 치듯듯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감추어졌던 성담론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확장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담론이 된 수준에 이르렀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아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여전히 가장 큰 인기예, 토크쇼에서도



아름다운 기독교청춘을 소개합니다!

청년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 교육 전공  
국제신학대학원 M.div.  
미디어 교육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이며,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은 씬남 씬녀의 연애 밀당 이야기이고, 인터넷 뉴스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기사는 연예인들의 스캔들 기사이지 않은가? 이렇게 사회 분위기는 연애 지상주의로 흘러가 청년들은 물론이고, 아직 사랑이 뭔지도 모를 어린이나 이미 결혼한 중년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까지도 연애의 욕망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토록 허무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유일한 낙이 바로 '연애'라는 기본 전제가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듯 하다. 얼마나 많은 연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섹스를 한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다름없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 풍경이니 말이다.

이렇게 연애 담론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JTBC에서 금요일



'청년연단'은 기독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은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

일 밤에 방영하는 <마녀 사냥>이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난리를 치고, 온동네를 뛰어다니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대세여서 너도 나도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와중에, 4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다소곳이 앉아 연애를 주제로 나누는 대화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아마도 그것이 '성과 연애'를 소재로 한 토크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프로그램의 큰 인기 물이는 그동안 얼마나 한국 사회가 그 주제를 숨겨왔으며, 속으로는 욕망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추느라 속터지게 살아왔는지를 역설하였다. 마녀 사냥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는 학교든, 교회든, 많은 장소에서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되었고, 그(혹은 그녀)가 나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라이트'는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명의 남자(신동엽, 성시경, 허지웅, 유세윤)는 단순히 진행자를 넘어서서 연애 상담사이자, 본격적인 연애 담론의 대중화를 가져온 개척자가 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변화되어 왔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사람들은 더이상 성과 연애에 대한 대화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 사연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를 얻게 되고, 또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연애는 분명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구조,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우선시하느라 연애와 같은 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터부시 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마녀 사냥에서 다루어지는 토크는 묘한 해방감과 대리 만족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연애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인간의 삶에서 연애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숭고한 경험이라고 한들,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부조리한 사건들이 터지는 와중에도 연예인 연애 스캔들이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비정








상적이지 않은가?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연애는 인간의 소소한 경험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비약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성경험과 연애가 지상에서의 인간의 비참하고, 남루하며, 허무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만 같다. 그러니 사람의 일생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소비를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연애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로 모아지는 듯 하다. 어찌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기독교의 관점이, 오늘날 "충만하고 행복한 연애 생활을 위하여"라는 관점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어진다고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은 우리 자신의 삶에 더 솔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관점을 갖게하는 것일까? 그런 삶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허무하고, 빈곤한 삶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그것은 교회의 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게 하였는가?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까지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남녀 간의 성과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것은 가장 추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가 후자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많이 염려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성적 욕구를 참사랑과 같은 것인냥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마녀사냥의 연애담론이 지금은 귀엽고, 유쾌하지만 지나치게 연애 만능주의나 쾌락주의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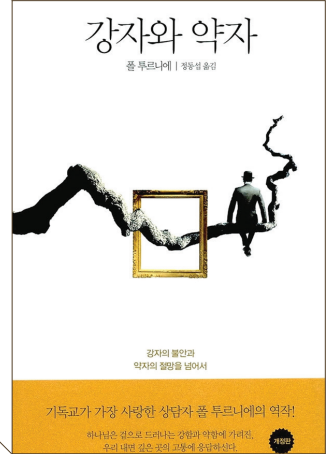
서평 <강자와 약자>

#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약자

이 책은 스위스의 내과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의 명작들 가운데 하나로서 『강자와 약자』라는 제목의 도서이다. 총 3부(1. 인간에 대하여, 2. 인간의 반응, 3. 심리학과 신앙) 9개의 장(1. 외양과 실제, 2. 좌절, 3. 두려움, 4. 약한 반응, 5. 강한 반응, 6. 상호 반응, 7. 정당한 방어, 8. 심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 9. 진정한 힘)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강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과 아울러 약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현상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을(甲乙)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 서적으로 분류해도 좋을 서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저에 깔려있는 신학서이며 신앙서적이다. 뿐만 아니라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는 부부, 서로 비난하고 구박하는 부부, 결혼생활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부, 팽팽한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경쟁적인 부부, 서로 억압, 협박, 강요하는 부부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책은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전요섭** 성결대 교수 총신대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석사)하고, 연세대학교학원(석사)과 단국대학교원 교육학과(박사) 및 미국 Oral Roberts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를 비롯 45권의 저·역서가 있다.



강자와 약자의 양상은 부부를 비롯한 가정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강자는 그야말로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올라선 사람이라면 약자는 말 그대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밑에 깔린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질 정도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며 관계구조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강자는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면서 약자를 짓밟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강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윤리가 나타난다면, 약자는 자신의 실패에 짓눌리고 강자에게 떨어뜨려 열등감에 빠져서 더욱 약해지는 모습이 현실이다.

하지만 트루니에는 강자나 약자가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모두 약자라고 전제한다. 소위 우리가 보는 '강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며, 실패와 실수를 무시하며, 성공을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가 보는 '약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무시하고 좌절하며 성공과 성취조차도 지나치게 위축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자로서 이 둘은 모두 약함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은 동일한 뿌리의 다른 열매이며 강자든 약자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투르니에의 분석이다. 강자나 약자는 모두 약함과 불안, 두려움이 그들의 심리 저변에 깔려 있다. 강자는 그것을 감추는데 성공한 자들이고, 약자는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들켜거나 드러난 자들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강자에 속한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높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영웅다운 기백을 가진 사람들, 판사, 교수, 교사, 의사, 목사, 사업가, 고용주...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자로서의 열등감과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강자는 이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부단히 포장하고 감추기에 성공한 결과로 자랑과 자기 과시가 나타나는 반면, 약자는 이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부단히 위축되고 잘 포장하지 못해 들리고 실패한 결과로 수치와 자기 비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강자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더욱 짓밟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트루니에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병리현상들은 강자가 강한 모습을 힘겹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욕구를 짓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모습은 약자도 예외가 아닌데,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애써 감추려는 힘겨운 노력이 질병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강자는 더욱 강한 척하며 약자를 희생제물로 삼는다. 더욱 강해지려는 과정은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사회현상이며, 이상심리적이다. 약자가 더욱 좌절하고 열등감으로 강자를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과정도 역시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대인관계이므로 해결되어야 할 관계구조이다.

이 책은 강자를 부러워하며 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강자가 된 자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의 교훈에 기초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약자의 유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약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죄를 인정한 사람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강자들 약자들 자신의 죄와 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때 영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강조점이다. 자신의 문제, 약함, 불안, 두려움, 죄책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도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지며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바람직한 일이 '심리적 검열'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서로 진솔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강자의 허세와 약자의 수치로 인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혜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약속된다. 신앙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 두려움으로 인




해 발생하는 약한 반응인 우울, 낙담, 슬픔, 자기 연민, 자책, 권태감, 지나친 자기 비난, 공포, 현실도피, 은폐, 침묵, 무기력 등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용기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트루니에는 마송 우르셀(Masson Ourssel)의 "...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신앙에 적용할 것을 피력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이상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안내서이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 청소년이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교만, 반항, 권위주의, 허영, 분노, 감정 폭발, 변덕스러운 행동, 히스테리의 발작, 불륜 그리고 수치, 수줍음, 두려움, 죄책감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가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다.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트루니에의 수십년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풍성한 예화로 독자들이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의 최대 강점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9장은 결론이다. 여기서 저자는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관계나 구조가 강함과

약함의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힘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의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의사이며 정신건강 의학자로서 신앙으로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된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며, 모든 질병을 신앙이 치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분명히 있고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하게 치료하는 현상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 기독교 명작들을 저술하여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친 트루니에의 사상은 "강자와 약자"라는 주제로 이 책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강자는 자신의 약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약자는 자신의 약함에만 집중하여 움츠러들지 말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없었던 강자들의 이상심리와 행동들 그리고 역시 알 수 없었던 약자들의 왜곡된 마음과 태도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읽기에 매끄럽게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옮겼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다. 



서평 <디스그레이스, 디스를 벗다>

## 아픈 이들과 함께 일어서기

우리는 성이 상품화되고 성이 자유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성은 TV와 인터넷 안에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문을 열어 놓은 채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린다. 마음만 맞으면 자유롭게 성을 사고 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해자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치인, 전직 검찰의 총수인 법조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등 사회 지도층도 성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더욱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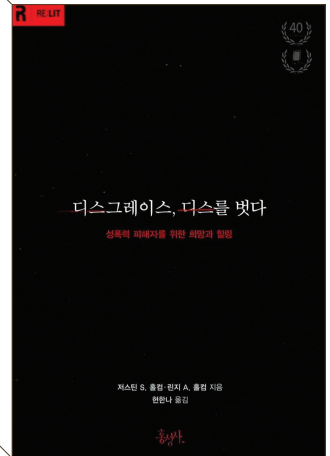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이며 학자이고 상담가인 저자들, 저스틴 S. 홀컴과 린지 A. 홀컴은 오랫동안 성폭력을 상담해온 목회 경험과 전문적이고 깊은 학문적 바탕 위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복음에 기초한 소망과 치유를 경험하고, 사역자와 피해자 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폭력으로 입은 피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크 드리스콜 목사는 추천사에서 “성폭력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 희망과 도움을 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

저자는 우리가 폭력을 당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분명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만 고통 중에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또 마음속 깊이 수치심이 자리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은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2).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13).



**이진영** 현재 성결대학교 객원교수로 성결대 대학원에서 상담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B.Sc.) 졸업하고, 성결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상담학과 석사(M.A.), 박사(D.C.C.)를 수료했다.

저스틴 S. 홀컴, 린지 A. 홀컴 공저  
현한나역 | 홍성사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다.

파트1은 디스그레이스, 파트2는 은혜와 적용, 파트3은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은 1장과 2장으로, 성폭력에 대해 진술하고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성폭력의 정의와 그 결과를 기술했다. 3장에서 8장까지의 파트2는 은혜의 적용으로 수치스러운 경험 가운데 은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거절감과 수치심, 왜곡된 자아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죄책감과 분노와 절망은 성폭력을 당한 후 함께 몰려오는데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임을 설명한다. 파트3은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평자는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파트1. 디스그레이스

성폭력이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모든 성적인 행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개인의 삶과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현대사회의 법적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 강간을 뜻한다. 그러나 저자는 성폭력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30). 첫째, 명확히 이해

한 피해자들은 홀로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들이 당한 일을 ‘범죄’라고 여기게 되므로 사건이 더 많이 보고되고 드러난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로 설 때,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배려받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주어야 할 이들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바르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다섯째, 통계와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잘 모르고 성폭력 문제를 다룰 만한 지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보다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시선과 희생자로 낙인찍히는 것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9).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감정에 다가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감정이 생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1).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그들을 치유한다는 것이다(52-53).

## 파트2. 은혜와 적용

이 파트에서는 성폭력으로 나타난 6가지의 심각한 피해인 부인, 왜곡된 자아상, 수치심, 죄책감, 분노, 절망을 상담 케이스로 접근하며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자들은 용기를 내었고 저자는 수치스러운 과거 이야기를 책에 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한다. 이제 이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 ① 부인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주된 방법은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부인하고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것이다. 치욕스러운 경험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부인하거나 억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오히려 치료를 늦출 뿐이다(62).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고통 가운데 임해야 한다(62)고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어떤 악행이 저질러졌는지 고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평화를 새롭게 이뤄 가실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66).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고통을 나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 ② 왜곡된 자아상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자아인식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스스로 명청하고 무가치하며 순결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와 낮은 자존감의 징후를 보인다. 이것이 심화되면 자기비판이나 자기 증오, 자기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사건 중에 만족스러운 감정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면 더욱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더욱 심화된다(86-87).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수치심과 혐오심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을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 안

에서 본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사건으로만 가능하다(90).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주셨음을 의미한다(94).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성폭력을 겪고 스스로를 잘못 인식하게 된 이전의 정체성보다 훨씬 강력해진다(105).

### ③ 수치심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여겨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상처와 거절감으로 삶을 황폐화시킨다. 또 하나님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낀다(116-117). 그러나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분리해야 한다(118).

저자는 우리의 수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모욕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셨다. 사역하시는 동안 내버려진 부정한 자들을 하나씩 만나 만져주셨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치심은 다른 이들이 전가한 수치였다(125). 예수님은 마땅히 맛봐야 하는 기쁨을 치욕과 맞바꾸셨으며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승리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수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 ④ 죄책감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을 탓한다고 말한다. 죄책감은 정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온다(145). 죄책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장소나 시간에 잘못된 사람과 있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폭력을 유



발했다고 믿으면 죄책감은 더욱 심해진다.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이나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146).

저자는 성폭력 사건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은혜를 강구하지만, 대부분은 수치심과 벌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에 직면해 이를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대속물로 내려놓으셨고(마 20:28) 직접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롬 5:9-1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용납되며 죄가 없다. 내가 한 잘못과 실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며 사랑하신다(159).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죄책감 대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⑤ 분노

저자는 성폭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죄이며 악한 행위이고 당연히 분노를 유발한다고 한다. 피해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일고 그 분노는 고통 때문에 더욱 타오르며 분노는 통제하지 못할까봐, 쉽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을 일으킨다. 성폭력으로 자라난 분노의 감정을 부인하면 억울함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저자는 성경이 분노를 무조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화가 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170).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화를 내신다(171). 그리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함께 분노하자고 부르신다(172).

성폭력 이론가들은 용서를 달갑지 않은 주제로 여기지만,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서는 피해자 상담에 매우 도움이 되며 성폭력적 삶을 지배하던 나쁜 영향을 줄여주고 생활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킨다(187).

### ⑥ 절망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경험은 소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절망과 무기력 사이를 오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 침입하여 목적과 동기를 마비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욕구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195-196). 결과적으로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셔서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은 끝나고 이제 소망이 생겼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은혜가 모욕의 자리를 대신하고 평화가 불안감을 떨치게 만든 것이다(20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210).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다(211).

우리 주변에서는 오늘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구원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망과 치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악은 오직 파괴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아픈 부분을 드러내 잘라내고 치유하신다. 이 책은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는 성상담에 관한 책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필요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5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920,000		기타급여	969,500		
	일반회비	4,640,000		소계	4,569,500		
	기관후원금	1,850,000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681,500		사무실관리비	507,700		
	세계관지역지원금	22,690,000		통신비	396,920		
	CTC후원금	540,000		우편료	64,800		
	기타후원금	100,000		소모품비	59,690		
	학술지원금	0		식비	342,850		
				복리후생비	664,770		
기타수입	소계	32,171,500	경상비	퇴직연금	293,240		
	기타수입	800,594		회의비	2,381,480		
	소계	800,594		회계용역비	22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기타	340,378	
		학술지심사비		630,000	소계	5,821,828	
		학술지게재료		422,500	연구지원비	세계관지역지원금	21,530,000
		학회기타수입		0	CTC후원금	99,175	
	소계	1,152,500		학술지원금	0		
	당월 수입액	소계		34,124,594	소계	21,629,175	
		전월 이월액		34,829,426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000,000
			발송비	313,000			
			소계	2,313,000			
			기타	세금	53,220		
				소계	53,220		
			학회	학술지인쇄비	2,574,000		
				학술지발송비	601,530		
				학술지심사료	1,140,000		
				학회기타	100,000		
				소계	4,415,530		
당월 수입액			당월 지출액				
34,124,594			38,952,253				
전월 이월액			차월 이월액				
34,829,426			30,001,767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소계	1,900,000	
	소계	1,55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편집비		300,000	
	도서판매비	380,800	디자인비		1,056,000	
	기타수입	158,650	인쇄비		2,517,020	
	소계	2,539,450	번역비		50,000	
			소계	4,083,02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1,0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미디어장학등록	0		복리후생비	283,120	
	소계	1,050,000		퇴직연금	137,68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회계용역비	110,000
		도서판매비		380,800	우편료	1,110
		기타수입		158,650	식비	58,300
		소계		2,539,450	소계	865,210
		소계		5,139,450	기타지출	세금
				기타	7,400	
				소계	163,30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비품구입비	132,000	
				미디어행사준비	2,188,600	
				미디어기타	12,500	
				미디어식비	150,500	
				소계	2,483,600	
당월 수입액			당월 지출액			
5,139,450			9,495,130			
전월 이월액			차월 이월액			
17,234,023			12,878,343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31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권기웅, 김경현, 김고운,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유성욱, 정세열, 정필화, 조성진, 조영태, 지경순, 진성자, 최현일, 최화정, 하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구재현, 권명중, 권자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재우, 김태윤, 김현아, 김현경,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실, 송호욱, 신기혁, 심현정,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유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윤희,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중국, 장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황찬문 6천 구재형 7천 이동렬, 정필규 7천5백 강찬진, 고상선, 김나실, 김은민, 김효태,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이병주, 이세호, 이원평, 이은수, 이지은, 전영식, 정월길, 정창주, 진영규 1만 David Han, 가월현,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희식,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공승건, 곽은이, 광창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명,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규옥, 김근배, 김기현, 김나경,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병래, 김상범, 김성경, 김상민, 김세영, 김세진, 김소희,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숙, 김영완, 김영호, 김용석, 김우신, 김원희,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호, 김정화, 김중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철수, 김판일, 김혁,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제,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주하,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재환, 박강국, 박경민,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두석, 박두환, 박상균, 박상호, 박성인, 박애란, 박은영, 박중국, 박준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혜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인교,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희진, 성광원, 소종희, 손한나, 손현탁,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선영, 신성자, 신지영, 신지선, 신찬은,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호영, 심명식, 심인옥, 안남주, 안병원,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근,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오경숙, 오성호, 오지선,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종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환, 유정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명식, 윤상현, 윤천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경직, 이계실,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급, 이상기,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상연, 이상연, 이서연,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주, 이정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선,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진영, 이화선,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미림,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근, 장승재, 장영철, 장옥경, 장유진,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장원, 전중화, 정경식, 정종식, 정문선, 정상복, 정세준,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희원,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한글,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상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연, 최진우, 최현빈, 최현식, 최희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인관,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 현, 현승근, 현한나,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해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호수, 유익신, 정상섭, 조영숙,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관, 김세원, 김요한, 김용식, 김인숙, 김효숙, 노경순, 노용환, 박시문, 배성민, 배지연, 변우진, 송대영, 양애란, 우시정, 이 건, 이덕영, 이명희, 이인아, 정경미, 정현주, 조창근 2만5천 문석운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중규, 문준호, 박성진, 박신현, 박영주, 변희지, 서성록, 양성만, 오익석, 오한나, 우병룡, 이근호, 이은실, 이종원, 임희욱, 장수영, 최용준, 추태하, 황정진 4만 김세광, 김홍섭 5만 강영택,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소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함부영 7만 최태연 8만 권경아 10만 김미영,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12만 홍순모 15만 현은자 33만 김중락 42만 정영록 2,269만 무명 19인

계 30,321,500원

##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새김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연약교회, 예심교회, 주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돌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계 1,850,000원

## 광고후원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흥성사, DCTV, 오하우스코리아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ORLDVIEW NEWS

##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와이드 칼럼 월드뷰

국민일보의 오피니언면 토요일자 와이드 칼럼으로 "월드뷰"를 신설하여 본지의 편집위원의 칼럼을 공동으로 발행합니다.

### [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돌아오는 봄, 2015년 춘계학술대회가 평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 학문
  - 일시 : 2015.5.30.(토)
  - 장소 : 평택대학교
  - 논문발표신청접수 마감 : 4/10(완성본 제출마감 : 5/10)
  - 발표분과 :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 대학원생 논문발표는 오전에 진행되며, 발표하는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심사,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 문의 02-754-8004

## 월담 (越談) 태몽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Oni Zu\*\*

미신이지..똥먹는 꿈꾸면 돈 생긴다던데..개구라임..난 이상하게 똥 먹고 똥 묻는 꿈만 그렇게 꾀 드럽게 꿈.

@ Dong\*\*\*

길게 적어야 올려주는 거 아닌가요? ㅋㅋ 꿈이란 건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수면영화와 같다고 할까요?^^

@문신\*

그냥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가는 일.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를 투영한 것..이 정도?

@ Min \* Park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꿈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는 믿는 편

@ \*\*ju Oh

야곱, 요셉, 솔로몬....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기록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꿈에도 말씀하고 계시겠죠. 다만, 저희의 편견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고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요^^

@김지\*

나는 태몽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거든? 근데 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올 엄마가랑 동생 임신하셨을 때 똑같은 꿈을 꾸셨대~ 무려 3년 간격인데~ 깨고 맑은 강에 잉어 두 마리가 힘차게 헤엄치는 꿈.. 그래서 나는 여아 내 태몽은 그런가보다 하고 살았는뎡ㅋㅋ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무순 동물 중에 태몽으로 안치는 동물들ㅋㅋ 호랑이 뭐 어찌구는 은데 개 같은 건ㅋㅋ 태몽 아니라고ㅋㅋ 난 그런 거 들으니까 저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라는 생각이...ㅋㅋ

@임한\*

ㅎㅎㅎ나는 꿈을 하도 많이 꾸는데 뭔가 이상한 꿈을 자주 꾀서..성도 그닥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꿈이 확 와닿을때도 있잖아 지 ㅋㅋ 근데 서양에도 태몽문화가 있나?

3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임나\*

꿈은, 무의식적인 것이든 의식적인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을 때 신경 썼다든지, 이미지로 각인 됐을 때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태몽 같은 경우는... 좀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게 하도 오랫동안 이어져와서 통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무슨 꿈꾸면 아들이고, 딸이고를 맞춘다는 건 좀 미스터리한 거 같아. 물론 안맞을때도 있지만 ㅋㅋ 나 같은 경우는 안맞았지만...-\_- 그리고, 옛날보다 사람들이 접하는 감각적 이미지들이 많아서 그 확률(?)도 많이 떨어지는것 같긴 하네. 성경에서 보면 꿈의 해몽이나, 꿈이라는 소재를 갖고 꿈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글썄, 이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점쳐보기를 좋아하는 불안정한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 ㅎㅎ 일단, 나는 꿈을 잘 꾸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가끔 데자뷰나, 예지몽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놀랄 때도 있지. 꺼림칙할 때도 있고 ㅎㅎ 좋은 꿈만 믿으려는 내 중심적인 사고도 있고 ㅋㅋㅋㅋ

@김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과일은 딸~ 돼지는 로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 같네~ 이런 건 한국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닐까? 싶다는~ 외국에도 이런 게 있나??

@김하\*

ㅋㅋ근데 사람 생각이 지배하는 거 알지? 꿈도 그래서 꾸는 거지네.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걸 믿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라고 모두들 생각하겠쥬...

@조성\*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으레 물어보는데. 그냥 돌잡이같이 재미삼아 그 시기에 꾸는 꿈을 아가와 연관시켜 보는 게 아닌가 싶음. 그 시기에 나쁜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태몽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듯이 ㅋㅋ 아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여선\*\*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인 거래요. 다만 우리에게 잊혀진 언어가 되었으니 회복이 필요한 거지요

@ Ju-Yi \*\*

꿈 해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미신처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의미를 갖다 붙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의미를 깨달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한 듯요

1	16	
2	17	
3	18	
4	19	
8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5시 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C관 2층, 숙명여대 10번출구)
13	28	
14	29	
15	30	
	31	신앙과 학문 20권 1호 발행

※ 3/27 5시 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C관 2층, 숙명여대 10번출구)

※ 3/31 신앙과 학문 20권 1호 발행

#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황사에, 중금속에 환경마저도 안녕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연일 들리는 뉴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우리 손에 잡히는 일들도 소망을 기대하기엔 그저 심란할 뿐입니다.


지금 고개 들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작은 네모 상자 안에 갇혀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위로도 위안도 이 상자 안에서만 찾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자니 한숨만 나오지요.  
생각을 하자니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바로 눈 앞에 있어 더욱 커 보이고,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만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또 내일만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거리(zeitabstand)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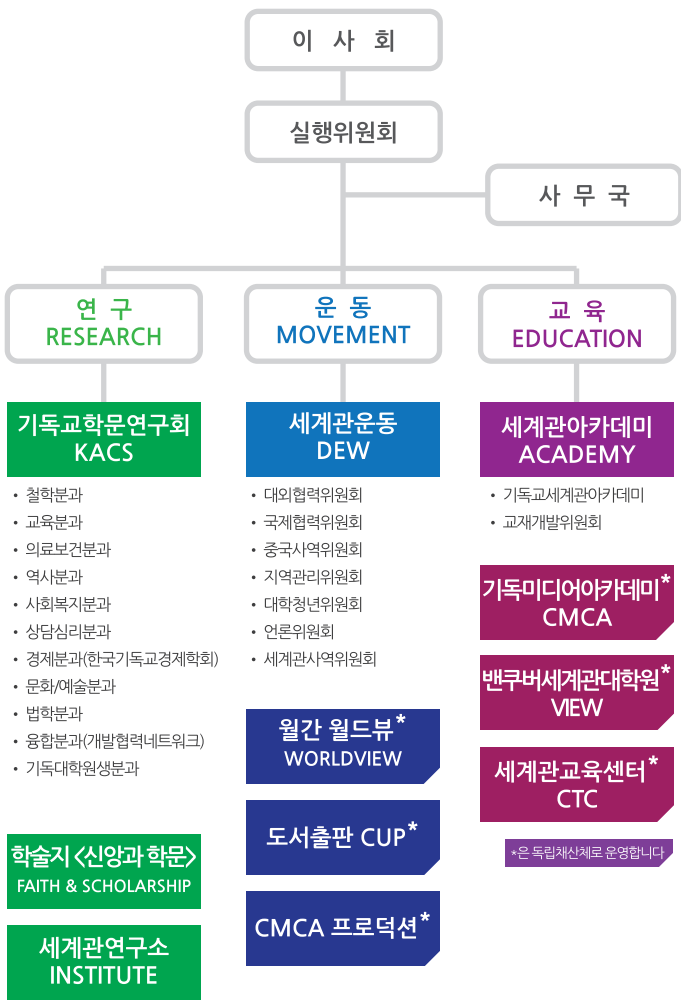
술한 인스턴트 메시지의 공격, 일상의 숨 쉴 틈 없는 소음으로부터  
우리 거리두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뭔가 하는 것(doing well)에 집중하지 말고, 그저 잘 있어(being well)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경쟁, 뭔가 성취하려는 끝없는 욕심에 무심코 휩쓸리지 말고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을 두고 거리두기 해 보자구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조급함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을 넘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 뒤에 있음을,  
우리 앞에 이미 길이 되셨음을,  
내 옆에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녕,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과 안녕하십시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백석대 前 부총장), 양인평 (범무법인(유)로고스 고문)
- 이사**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M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 공동회장 및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항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해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A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사무국**  
 사무국 본부장 김태항 (명지대 교수)  
 대표간사 신희영 간사 홍정석, 김교은

- 후원교회 및 단체**  
 100주년기념교회, 개봉교회, 광주세안약교회, 금성교회, 글로벌한가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대구성덕교회, 마포중앙교회, 백석대학교, 부천침례교회, 빛과소금교회, 산정현교회, 삼일교회, 새길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송탄제일교회, 수영로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안성중앙대학교교회, 연약교회, 예신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주빌리체들,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환동교회 (가나다 순, 총30교회)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학회장(연구본부장) :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국제·대외협력부회장 : 박신현 (고신대 교수), 연구부회장 :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회장 : 손병덕 (총신대 교수)  
 감사 : 김홍섭 (인천대 교수), 문준호 (재스마트/융합시스템연구원 연구부교수) / 총무 : 임훈택 (경남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만 (서강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윤완철 (카이스트 교수),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조우성 (고려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황호찬 (세종대 교수)  
 본부장 : 경제/경영 분과장 : 이홍구 (건국대 교수), 교육 분과장 : 박영주 (아신대 교수), 문화/예술 분과장 : 서성록 (안동대 교수), 법학 분과장 : 조영길 (B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 분과장 : 이상무 (평택대 교수), 상담/심리 분과장 : 전요섭 (성결대 교수), 역사 분과장 : 권태경 (총신대 교수), 의학 분과장 : 김지원 (백석대 교수), 융합 분과장 : 이우성 (STEPA), 철학 분과장 : 양성만 (우석대 교수)

**운동본부**  
 본부장 : (공석)  
 대외협력위원장 :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 국제협력위원장 : (공석) / 중국사역위원장 : 정수균 (선교사) / 지역관리위원장 : 박신현 (고신대 교수) / 대학청년위원장 : 최용준 (한동대 교수) / 언론위원장 : 강진구 (고신대 교수) / 세계관사역위원장 : 김승욱 (중앙대 교수)

**월드뷰\*** 대표주관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 김승욱 (중앙대 교수)  
 편집위원 :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김태항 (명지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조성돈 (실천신대 교수), 조영길 (BS 법무법인),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편집인 : 신희영, 교정/교열 : 김선경, 디자인 : 황정희, 제작 : (주)세심바로보기

**도서출판 CUP\*** 대표 : 김해정, 마케팅실장 : 윤여근

**CMCA 프로덕션\*** FD : 장유진, AD : 홍정석

**교육본부**  
 본부장 : (공석),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 (총신대 교수), 교재개발위원회 위원장 : 최태연 (백석대 교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고문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 원장 : 조정민 (베이지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운영위원 :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강진구 (고신대 교수), 장유진 (FD), 유지은 (FD)

**반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원장 : 양승훈, 이사 : 조영택, 김명준, 박신일, 김주영, 주임교수 : 전성민, 간사 : 이계현, 유승훈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표 : 유경상, 팀장 : 안성희

## 이내와 생명의

(1) 영국의 처칠 수상이 어느 날 의회에서 회의하는 도중 어떤 야당 여성 의원과 심한 논쟁을 벌였다. 흥분한 여성 의원이 차를 마시는 처칠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틀림없이 그 찻잔에 독약을 넣었을 것입니다."

처칠은 웃으면서 응수했다. "당신이 만약 내 아내였다면, 나는 주저 없이 그 차를 마셨을 것이요."

(2) 어떤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아내 때문에 못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랍비는 그 문제꺼리 부인을 만나본 다음 다시 충고하겠으니 며칠 후에 다시 오라 했다. 그 여자를 만나 본 랍비는 다시 찾아온 남자에게 충고했다: "자살하게!" 